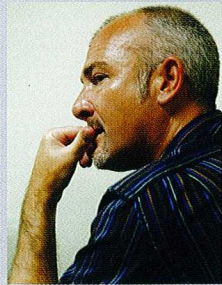


Cast | 주르맹 이상직 · 마담 주르맹 조은경 · 휘실 이은희 · 클레몽트 & 무용선생 한윤춘
 도리엔느 광명화 · 도량트 & 음악선생 김중구 · 니콜 게이명
 코비엘 & 철학선생 이영호 · 검술선생 서상원 · 재단사 노석채 · 양재 견습공 이원재
 가수들 국립오페라단 고희영, 김준홍, 한상식
 무용수들 국립무용단 윤성철, 정길만, 박성국, 박영애, 정소영
 음악인들 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 : 박천지) 어미순, 김영미, 임현, 김종욱, 송희선,
 박천지, 이석주, 권의의성, 이상준

몰리에르 (1622~1673) 프랑스의 극작가 겸 배우. 사회 비판적인 희곡을 주로 쓴 작가로, 당시의 위선적인 생활상, 귀족들의 퇴폐성, 경박한 사교생활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희곡으로 유명하다. 본명 장 바티스트 포클랭(Jean Baptiste Poquelin). 자신의 마지막 작품 <기분으로 앓는 사나이>의 제4회 공연에서 주인공 아르갱 역을 맡아 열연하다가 발작적으로 기침을 했고, 연극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그 날 밤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라신스와 함께 프랑스 고전을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진 몰리에르는 탐욕, 위선, 소심, 허풍 등 인간 내면의 허를 찌르며 세익스피어의 위대한 비극들 못지않게 삶에 대한 깊고 풍성한 통찰을 제공했다.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대표작으로 <수전노>, <타르튀프>, <돈 쥐앙> 등이 있다.

에릭 비니에 Eric Vigner

프랑스 연극계에서 정통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은 젊고 실험적인 연출가 풍부한 교육 및 현장경험으로 최연소로 국립연극센터 소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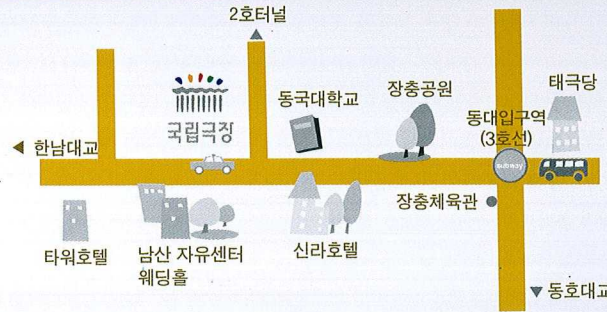


현재 프랑스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 소장이자 부설 로리앙 극장의 예술감독. 1960년 프랑스 브르타뉴 렌스에서 태어나 리옹 국립연극 예술·기술학교(ENSATT)에서 연출을, 렌스 콩세르바투아르와 파리 국립연극원(콩세르바투아르, CNSAD)에서 연기를 전공했다.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연기와 연출, 무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아 학력뿐 아니라 실전에서 인정받고 있다.
 극예술아카데미에 참가하면서 아나톨리 바실리에프, 오이다 요시, 루카 론코니 등과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피터 브룩의 초청으로 연극연출에 관한 연구 아틀리에(일종의 워크숍) 활동도 하고 있다. 특히 소설가 마르그리트 뒤라스와의 인연과 우정으로 유명한 비니에는 2002년 뒤라스의 <사바나 만(灣)>을 '코메디 프랑세즈'에 올려 코메디 프랑세즈 레퍼토리에 뒤라스의 이름을 최초로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 공연명 : 국립극단 제202회 정기공연 / 세계명작 무대 <귀족 놀이>
- 일시 : 2004년 9월 11일(토)~24일(일)
 평일 7:30pm, 토요일 4:00pm, 7:30pm, 일요일 4:00pm *단 13일(월)은 공연 없음
- 장소 :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
- 관람료 : 3만원, 2만원, 1만5천원 *사랑티켓 참가자
- 예매 및 문의 : 02-2280-4115~6 (국립극장 고객센터), 02-2271-1741 (국립극단), 1588-7890(티켓링크), 1544-1555(인터파크), 인터넷예매(www.ntok.go.kr)

*국립극단 공연을 알뜰하게 볼 수 있는 '매니아' 들만 아는 상식 - '쟁이석'
 매 공연마다 당일 2시부터 국립극장 고객센터에서 선착순 20명에게 으뜸석 10좌석과 버금석 10좌석을 한 좌석당 프로그램 포함 '단돈 5,000원'에 1인당 2매 한정으로 파격적으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전 좌석이 매진되어 있더라도 '쟁이석' 만큼은 남겨 놓으니 몸만 빠르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싸게 보고 프로그램도 덤!'

Staff | 원작 몰리에르 · 예술감독 이윤택 · 연출 에릭 비니에 · 번역 · 드라마트루그 최준호 · 공동 번역 및 조연출 한덕화 · 편곡 박위철, 조원행 · 조연출 및 안무 프레데릭 롱바르 · 무대 디자인 에릭 비니에, 윤시중 · 의상 디자인 에릭 비니에, 송은주 · 조명디자인 조엘 우르베 · 무대바닥 디자인 은지 페냐르 김 · 조연출 및 통역 정미



국립극장 오시는 길 (위 치) (100-857) 서울특별시 중구 정충동 2가 산 14-67
 (문의 전화) 02)2280-4114~6(국립극장 고객센터)

교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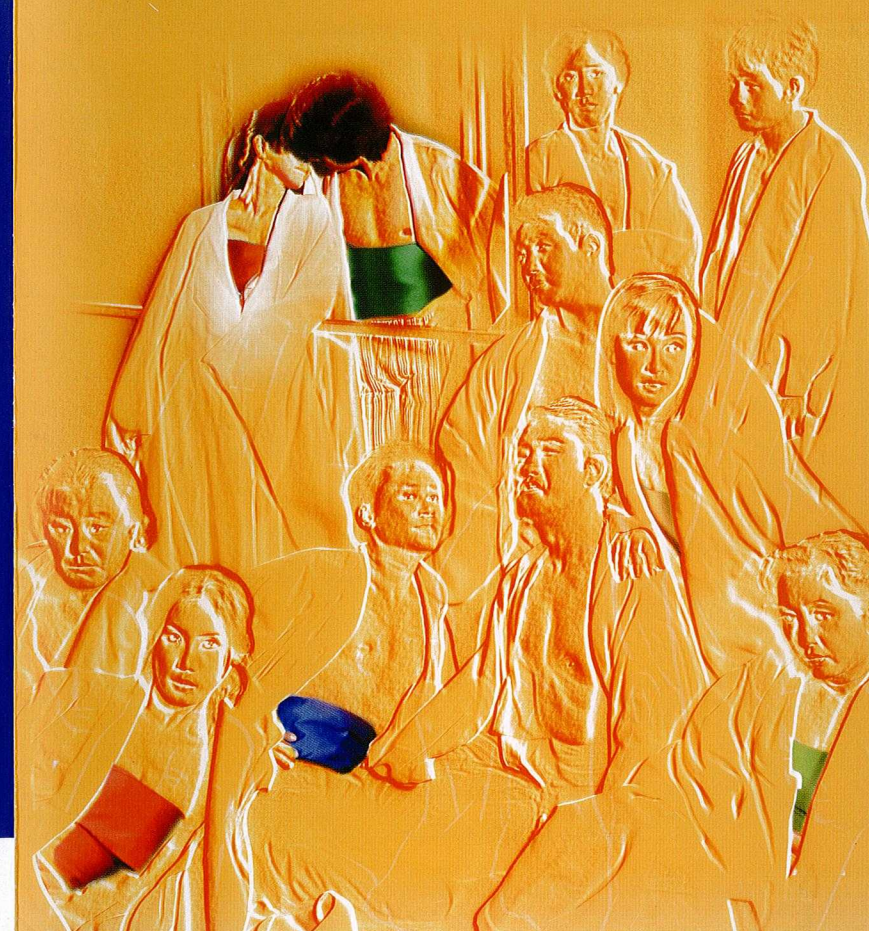
-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하차 - ②번 출구 : 서블버스 이용
 - ⑥번 출구 : 산책로 이용 (도보 15분 소요)
- 버스 - 간선(파랑)버스 144, 301번
 - 광역(빨강)버스 9410번 장충동 하차 후 서블버스나 도보(15분 소요) 이용
 - 간선(파랑)버스 420번 국립극장 하차

서블버스 이용안내

- 타 는 곳 : 3호선 (동대입구)역 ②번 출구, 태극당 앞 (국립극장 서블버스 타는 곳)
- 운행 시간 : 공연 시작 40분 전, 20분 전 출발(5분 소요) 예) 공연시간 8:00인 경우 - 1회 7:20(40분 전) 운행, 2회 7:40(20분) 운행

Information

NTOK Customer's service center Tel.2280-4115, http://www.ntok.go.kr



Le Bourgeois Gentleman

귀족놀이

한 남자의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
 - 새롭게 해석되는 <귀족 놀이>

2004.9.11(Sat)-24(Fri)

평일 7:30pm. / 토요일 4:00pm, 7:30pm. / 일요일 4:00pm. (단, 13일(월) 공연없음)

• 주최: 국립극장, 프랑스 로리앙 국립연극센터, 주한프랑스대사관 • 주관: (주)도티움 커뮤니케이션즈, (재)국립극장 발전기금
 • 후원: 로도복권시스템사업자, KLS, 프랑스외무부예술진흥협회, KOBACO, POSCO, 농협은행



프랑스의 연출가 에릭 비니에와 최정상 스태프들이
한국 국립극단의 젊은 열정과 배우들과 만났다.

2004년 국립극단 세계명작무대로 오르는 <귀족놀이>는 몰리에르(1622~1673)의 희곡 <Le Bourgeois Gentilhomme(평민 귀족)>를 원작으로, 여기에 한바탕 '놀이'로서의 유희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작품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 현대적인 감각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프랑스 판 '양반전'이라 해도 무방할 <귀족놀이>는 기존의 작품 해석이 평민 '주르댕'이 귀족계급에 끼어들려고 소동을 벌이지만 결국 웃음거리로 전락한다는 단순한 코미디로 알려져 있다면, 이번에 선보일 <귀족놀이>는 돈 많은 평민 주르댕이 후작부인을 사모하면서 문화와 예술로서 그녀의 세계로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한 남자의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표현되고 있다.

에릭 비니에가 직접 연출과 무대 및 의상디자인을 맡았고, 프레데릭 롱바르(안무 겸 조연출), 조엘 우르베(조명) 등 프랑스에서 연극, 오페라, 무용 등 주요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정상의 스태프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디자인 된 무대와 의상은 윤시중(무대디자인), 송은주(의상디자인)와 같은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다시 한번 한국의 선과 질감이 물씬 나는 '한국 색깔'로 변모시켰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바로크음악은 박위철, 조원행의 편곡으로 '한국정서의 음악'으로 재탄생,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실현된다. 또한 국립무용단 단원들이 프레데릭 롱바르의 안무로 새로운 춤사위를 선보이고, 국립오페라단 단원도 가세해 국악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새로운 성악을 시도한다.

여기에 국립극단에서 간판주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상직(주르댕 역), 광명화(후작부인 역)를 비롯한 젊은 배우 11명이 총출연하여 좀처럼 보기 힘든 한 판의 축제를 벌인다.



2004년 가을 무대를 여는 프랑스風 퓨전 코미디

국립극단 '세계명작무대' <귀족놀이>
Le Bourgeois Gentilhomme

국립극단(예술감독 이윤택)의 간판 기획공연 시리즈인

'세계명작무대'의 2004 가을판!

프랑스 풍자희곡의 대가이자 배우 겸 연출가인 몰리에르 원작의

<귀족놀이>(번역 및 드라마트루그 최준호)가 프랑스 연출가 에릭 비니에의 연출로 9월 11일(토)부터 24일(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 오른다.

연출을 맡은 에릭 비니에(Eric Vigner · 44)는 현재 프랑스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 소장 겸 로리앙 극장 예술감독으로, 35세 때 최연소로

프랑스의 국립연극센터 소장에 임명될 만큼 실험성과 연극성을 고루 갖춘

연출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프랑스의 국립극장인 '코메디 프랑세즈'에

<사바나 만(灣)>을 고정 레퍼토리로 올린 인물로도 유명하다.

프랑스 고전 명작과 한국 전통미학의 신선한 랑데부!

10월엔 프랑스 로리앙 극장에 올려져 세계무대 진출

이번 <귀족놀이>공연은 한국 공연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한국 공연 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 동안 프랑스 브르타뉴의 '로리앙(Lorient) 극장' 무대에 다시 올려져 프랑스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 로리앙 극장은 에릭 비니에가 소장하고 있는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가 운영하는 브르타뉴 지역의 국립 극장으로, 지난해 개관한 1,100석의 대극장 무대에서 한국 국립극단의 <귀족놀이>가 그대로 올려진다.

특히 '로리앙(Lorient)'이라는 지명은 태양왕으로 받들어지던 루이 14세가 직접 지은 '오리엔트(동양)'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미래에 오리엔트 문화의 교류 거점이 되라는 뜻을 담고 명명되었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다. 2004년 그 진정한 의미의 문화교류가 국립극단의 <귀족놀이>로 비로소 시작되는데, 로리앙 극장은 국립극단의 공연과 때를 맞춰 6일 동안 다양한 한국문화(한국 음악, 춤, 문학, 영화, 요리, 한국인 화가의 그림전 등)를 소개하는 <한국문화 페스티벌>도 함께 열어 프랑스 관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전이 한국의 젊은 배우들과 만나면서 한국과 프랑스, 고전과 젊은 해석 간의 신선한 앙상블을 기대하게 하는 이번 시도는 한국-프랑스 간 새로운 문화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며, 한국에는 프랑스를, 프랑스에는 한국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004년의 가을 연극 무대 - 탄탄한 구성의 명작무대에 새로운 해석의 연출, 젊은 열정의 배우들, 한국춤과 오페라, 한국악기와 연주가 어우러지는 한바탕 신선하고 유쾌한 '축제'로 <귀족놀이>가 그 시작을 열어갈 것이다.

줄거리 돈은 많으나 이에 걸맞은 지위나 품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벼락 부자인 평민 주르댕. 후작부인을 남몰래 사모하는 주르댕은 부인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로 귀족세계를 꿈꾸게 되고, 귀족의 신분을 나타내 줄 외모 과 소양을 갖춰보고자 검술(劍術)·철학·음악·춤 선생을 고용하여 귀족 풍을 몸에 익히고자 한다.

한편 주르댕은 딸 뉘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 신분 상승을 꾀해 보려는데 이 딸에게는 이미 클레앙트라는 평민 출신의 애인이 있다. 평민 신분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주르댕은 노심초사하는데...

